



보도시점 2024.7.01.(월) 조간 배포 2024. 6. 30.(일) 09:00

## 금융정보분석원,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총회 참석

- FATF는 지난 2월 총회, 4월 장관회의에 이어 6월 총회를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음
-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신임의장인 멕시코 출신 엘리사 마드라조(Elisa Madrazo)의 **향후 2년간**(’24.7월~’26.6월) **우선 과제**를 **승인**하였음
- 이와 더불어,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**북한, 이란, 미얀마**에 대해 **고위험국가 지위**를 **유지**하면서, **북한**에 대해서는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·무기 거래로 인해 **확산금융 위기**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하고 **강하게 규탄**하였으며, **미얀마**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**대응조치 부과 가능성**을 **경고**하였음
- 한편, FATF는 이번달(’24.7월) 중 회원국들의 **특정비금융사업자**(변호사·회계사 등), **가상자산사업자**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각각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

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\*은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(Sands & Expo)에서 개최된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\*\* 총회(6.23~6.28일)에 참석했다고 밝혔다.

\* 한국 대표단(수석대표: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) 구성: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, 법무부, 외교부, 국세청, 관세청, 금감원,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

\*\* **Financial Action Task Force** : '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(AML)·테러자금조달 금지(CFT)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, 40개 회원(美·中·日 등 38개국과 EU 등 국제기구)으로 구성

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(FSRB)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, 회원국들은 ①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(멕시코, 엘리사 마드라조)의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, ②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,

③회원국들의 **특정비금융사업자**(변호사·회계사 등 DNFBPs), **가상자산사업자**(가상 자산거래소 등 VASPs)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번달('24.7월)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.

## 〈 1. FATF 업무 성과 확인 및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〉

FATF 회원국들은 싱가포르의 라자 쿠마르(Raja Kumar)가 의장을 맡은 지난 2년간 FATF가 추진해 온 업무 프로젝트(79개)를 대부분 완수(73개)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, 향후 **자산회복**(asset recovery), **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** 등 기존 전략적 우선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관련 국제기준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또한, **FATF 신임의장**인 멕시코의 **엘리사 마드라조**(Elisa Madrazo)는 향후 2년간('24.7~'26.6월) 범죄와 부패 예방,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(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)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**전략적 우선과제**(Strategic Priorities)\*를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으며, 회원국들은 이를 **승인**하였다.

\* 전략적 우선과제: ①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이행(Risk-based implementation) 강화로 금융 포용성 증진, ②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성공적인 개시, ③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속력 강화, ④자산회복, 실소유자 투명성 및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FATF 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, ⑤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노력 지속

## 〈 2.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〉

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, 중대한 결함이 있어 '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(Black List)\*'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'강화된 관찰대상 국가(Grey List)'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.

\* 회원국들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'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'와 '강화된 고객 확인을 요하는 국가'로 분류

## 가.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(Black List)

회원국들은 지난 총회('24.2월)와 마찬가지로 **북한**과 **이란**은 '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' 中 '**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**' 지위를, **미얀마**는 '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' 中 '**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**'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.

특히, **북한**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·무기 거래를 강화하여 **확산금융 위기**를 **고조**하고 있는데 **큰 우려**를 표명하고 북한을 **강하게 규탄**하였다.

이와 더불어,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**미얀마**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 세탁,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, **차기 총회까지 개선**하지 못하는 경우 **대응조치를 부과**할 수 있다고 **경고**하였다. 이에 대해,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, 인도, 인도네시아 등 아·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**미얀마의 상황**을 고려하여 FATF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미얀마를 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.

이와 관련하여,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**러시아**가 **북한**과 **상호 군사·경제 협력**을 **강화**해 나가는데 대해 **강한 우려**를 표하고, 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**FATF 회원국 의무 위반**임을 **강조**하였다.

## 나.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(Grey List)

FATF는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중 2개국(튀르키예, 자메이카)을 제외하고 2개국(모나코, 베네수엘라)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21개국\*을 명단에 올렸다.

\* (현행유지) 불가리아, 부르키나파소, 카메룬, 크로아티아, 콩고 민주공화국, 아이티, 케냐, 말리, 모잠비크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필리핀, 세네갈, 남아프리카, 남수단, 시리아, 탄자니아, 베트남, 예멘, (신규추가) 모나코, 베네수엘라

이에 따라, 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(EDD) 등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.

### <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>

종 류		내 용	국 가
·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	대응조치 (Counter-measure)	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, 해당 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조치 필요	이란 북한
	강화된 고객확인 (Enhanced due diligence)	해당 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	미얀마
·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		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	21개국

### < 3. 주요 프로젝트 결과 확정 및 공개 결정 >

회원국들은 부패 범죄 등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게이트 키퍼 (Gate keeper)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**특정비금융사업자**(변호사, 회계사 등)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**국제기준\* 이행 현황**을 **점검**(Horizontal Review)한 결과에 대해 논의·확정하였으며, 각 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달(‘24.7월)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.

\* FATF는 각 국이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 (R.22/23/28)

또한, FATF는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가상자산 및 **가상자산사업자**(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)에 대한 **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\* 현황**을 **점검**한 결과도 논의·확정하였으며, 각 국의 조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달(‘24.7월)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.

\* FATF는 ‘18.10월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국제기준(R.15)을 강화한 이후,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정기적으로 각 국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음

### < 4. 기타 논의사항 >

이 밖에도, 회원국들은 인도와 쿠웨이트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인도와 쿠웨이트의 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기준이행 노력을 확인하였다.

또한,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, ICRG\*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 (STC) 교육 등 '24년 교육 진행 성과를 점검하고,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을 차질없는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.

\*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

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(TRAIN: FATF 교육기구)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\*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,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·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,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.

\* STC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 처음으로 ICRG 검토자 교육 실시 예정

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·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.

※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6차 총회('24.6.23~6.28)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
참고로,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	책임자	서기관	송용민 (02-2100-1730)
		담당자	사무관	박미리 (02-2100-1788)



□ **설립 목적**

- UN 협약\*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(Financial Action)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(Task Force)로서 '89년 설립
  - \* 비엔나 협약('88, 마약),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('99), 팔레르모 협약('00, 조직범죄), 메리다 협약('03, 부패) 등
- 마약자금('89)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('96), 테러자금조달('01),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('12)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

□ **주요 기능**

-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,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
-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
-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, 대응수단 개발 등

□ **운영 방식**

- 총회(Plenary), 운영위원회(Steering Group), 5개 실무그룹(Working Group)으로 운영되며,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



□ **회원 구성**

- 정회원(38개국+2기구), 준회원(9개 지역기구), 옵저버로 구성
  -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(FATF Style Regional Body)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
- 우리나라는 '98년 아태지역기구(APG), '09년 FATF 정회원 가입